

수업시간에 '돌보이는' 학생이 되려면



면, 가장 단순하게 '신뢰를 주도록' 학교 생활을 하면 된다. 과제물을 제때 제출하고, 수업 시간에 늦지 않으며,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수업에 임하면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돌보이는 학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팁은 '팀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다. 교사는 운동팀의 코치와 같이 수업을 리드하고 모든 학생이 선수의 역할을 한다. 수년 전에는 수업의 모델이 일부 적극적인 학생들만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관찰하기만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요즘 많은 교사들은 훌륭한 팀 플레이어에게 점수를 준다. 수업을 경청하고, 수업의 토론에 의미 있게 기여하며, 수업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학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상적인 팀 플레이어는 교사뿐만 아니라 수업을 같이 듣는 다른 학생들과도 유연하게 교류한다.

세 번째는 지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이다. 학생들은 보통 '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교실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능력 있는 교사는 단지 가장 똑똑한 학생보다,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학생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럼 학생으로서 지적 호기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일반적으로 이것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수업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공부할 마음이 없다면 짜증을 내기보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이 내용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뭐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말이다. 해당 수업의 내용과 자신의 관심사, 또는 인생 간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12학년 2학기 성적 낮으면 대학 합격 취소될 수도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도 이후의 성적이 나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12학년 2학기 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합격했다는 기쁨에 젖어 학업에 충실하지 않아 성적이 곤두박질했다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을까?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답은 '그렇다'이다.

12학년 2학기가 되면 대입원서도 모두 제출했겠다 학업 태도가 느슨해지기 쉽다. 어떤 학생은 얼리모 합격 통보를 받아 놓아서 더 자만해지기도 한다. 대부분 학생들은 12학년 1학기 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2학기가 되면 게으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조기 전형(EA, ED, SCEA) 마감일은 보통 11월이고 정시 지원(RD)도 1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원서가 마감된다. 그러다 보니 일부 수험생들은 '이제 대입 원서도 다 제출했고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데, 고등학교 내내 바쁘게 살았으니 남은 기간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12학년 2학기 성적 때문에 대학에서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학생이 있을까? 있다. '미래교육연구소'에 따르면 A라는 학생은 UCLA에 합격을 했으나 12학년 몇 개 주요 과목에서 C를 받았다. 그 전까지 모두 A 학점을 받았었다. 이 학생을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12학년은 입시에 꽤 큰 영향을 끼친다. 성적뿐만 아니라 과외 활동도 마찬가지다. 프린스턴 대학은 12학년 성적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학생이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에서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대학에 합격하면 우리는 학생의 고교 카운슬러에게 12학년 봄 학기 성적표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 합격 통보를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건부' (conditional)로 12학년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대학의 원서 마감일이 12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1학기 성적 증명서 (mid-year report)를 추가로 보내라고 요구한다.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12학년의 수업 구성이 눈에 띄게 쉬우면, 대학 합격 가능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12학년 2학기에도 성적 관리는 물론이고 특별활동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좋다. 12학년 2학기는 결실을 맺는 시기다. 보람 있게 12학년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대학에서 받은 합격 통보는 '조건부 합격'이다. 고등학교 카운슬러는 12학년 1학기까지 성적표에 이어 2학기 성적을 포함한 최종 고등학교 성적표를 대학에 보내게 된다. 12학년 수업 구성의 난이도와 GPA가 11학년에서 내가 이룬 성취보다 대폭 낮다면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또한 학생이 학교로부터 심각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교사가 인정하는 '최고'의 학생이 되려면 단지 교사의 말에 잘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평소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소통을 더 잘 하게 되고, 수업에서 교사의 강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교사에게 최고의 학생이 된다면, 대학 입시에 필요한 강력한 추천서(letter of recommendation)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사 추천서는 대입 성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돌보이는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먼저 교사가 믿을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것이다. 교사들의 입장에서 항상 규칙을 잘 따르기만 하는 학생이 가장 훌륭한 학생인 것은 아니다. 물론 규칙 준수도 학교 생활의 기본이다. 수업 운영을 방해하면서 규칙에 순종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전제 하에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학생의 경우 더 돌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학생은 교사로부터 특별한 신임을 얻게 된다.

만약 이런 적극성을 표현하기 어렵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